

기독교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질적 연구: 벤 매넨(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방법*

A Qualitative Study on the Post-Traumatic Growth of Christian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 Van Manen's Hermeneutic Phenomenology Study Method

박병애 (ByungAe Park)**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post-traumatic growth of Christian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The researcher approached it with the hermeneutic phenomenology study suggested by Van Manen. The study analyzed not only the trauma of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but also recovery and growth within the church community. Five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data were constructed by conducting one-on-one in-depth interviews. As a result of the study, 142 meanings were derived, which were composed of 45 themes, and the revealed themes were gathered into 14 essential themes. The 14 essential themes were rearranged into bodiness, temporality, relationship, and spatiality. The bodiness appeared as 'hell experienced while alive', 'fallen into sex slavery', and 'deprivation of motherhood'. Temporality was expressed as 'the collapse of the world's faith', 'the shift from the broad road to the narrow road', 'a new life', 'accompaniment on the way to heaven', and 'the spread of God's love'. Relationship was expressed as 'lack of life', 'exposure to gaze violence', and 'restoration of the image of God'. Lastly, spatiality appeared as 'left behind in China', 'Canaan's dream and reality', and 'rest under the broom tre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thin the church community, suggestions were made on establishing a recovery system for North Korean refugees, nurturing gender-friendly female ministers, and making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a subject in missionary work in China.

Key words: Christian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post-traumatic growth, trauma of escaping North Korea, Van Manen's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study, ministry to Princess Pyeong-gang(North Korean female refugees in China)

* 2022년 8월 11일 접수, 9월 8일 최종수정, 9월 13일 게재확정

** 숭실대학교(Soongsil University)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 박사 후 연구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창의관 404호, bapark1@hanmail.net

I. 서론

북한이탈주민들은 과거 남·북한 체제경쟁 시기에 북한 주민들의 탈북과 남한 입국은 남한 체제가 우월하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졌으나 근래에는 시대적 상황과 정치 경제적 담론의 영향을 받아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의 헤어진 형제이며 통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들 중 여성과 그들이 겪는 도덕적 손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회복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통일부(2022) 통계에 의하면 6월 말 현재, 남한에는 33,834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70% 이상이 여성들이다. 북한의 경우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가 도래하였을 때 배급이 끊기고 많은 주민들이 아사했다. 이런 와중에서 행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여성들은 장마당 장사, 중국으로 노동 이주, 밀거래와 같은 행위를 통해 가족을 부양했다. 이런 전통은 북한이탈여성들로 하여금 김정일 체제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하였으며 이는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져 남성들보다 탈출이 많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박병애, 2020). 탈북과 중국 체류, 남한 입국은 남녀를 불문하고 공포와 때로는 생명 박탈이라는 위협에 노출된 사건이다. 특히 여성들은 북한과 중국 체류, 남한 적응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여성들은 중국을 거치지 않고 직행으로 한국에 입국하느냐 일정 기간 중국에 체류하고 한국에 입국하느냐에 따라 남한사회 적응에 차이가 있다(강동완, 2019: 2-4).

선행연구에 의하면 중국은 북한이탈여성들에게 있어 지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혹독한 땅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여성들은 대부분 가족과 이별한 후, 중국에 도착한다(이영진·김혜원, 2019: 54). 하지만 중국은 인신매매와 체포되어 송환될 수 있는 공포와 성폭력과 같은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북한이탈여성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호모 사케르의 존재 양식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김태현·노치영, 2003: 2 ; 양민숙·이동훈, 2017: 121 ; 이민영·김영경, 2007: 525-526 ; 박영호 외, 2010: 375-382 ; 박병애, 2020: 42).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부 연구자들은 북한 주민들의 탈북은 보다 자유롭고 우호적인 환경을 찾아가는 노동 이주라는 관점과 함께 그들의 이주는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 이주라는 관점을 재개하고 있기도 하다(김화순, 2017: 236-238). 일부 북한이탈여성들은 스스로 중국 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한다고 보고하기도 한다(Muico, 2005).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북한이탈여성들이 처한 환경과 중국의 구조 등을 살피지 못한 피상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인신매매는 그 자체로써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확한 통계를 추산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ILO and Walk Free Foundation, 2017). 연성진(2018)의 북한이탈

여성들의 인신매매 범죄 실태에 대한 연구에서 응답자의 90.7%는 중국에서 강제 결혼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다. 소수의 북한이탈여성들은 인신매매나 성매매 경험 없이 중국 남성들과 결혼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북한이탈여성들에게 호구 즉, 호적을 만들어 주지 않으므로써 불법 체류자의 지위에 묶어놓고 그들의 의지대로 여성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동완, 2017: 167). 이와 같은 극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한에 도착한 북한이탈여성들은 새로운 땅에서 적응보다는 북한 체류, 중국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지닐 수밖에 없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우울과 같은 정신 건강상의 문제와 함께 성적 자율성의 저하는 물론 삶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중국에서의 체류 경험 못지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김윤아·김미영, 2016: 333 ; 김미자, 2010: 2-3 ; 김광호, 2015: 432-433 ; 김현아, 2016: 107-109 ; 김경미, 2021: 95-96 ; 이영진·김혜원, 2019: 47-48)

일부 연구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찾아 이주한 노마드(nomad)로 보기도 하지만(엄태완, 2015: 8) 이주민이 이주지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충돌, 열악한 고용, 가족 결속의 와해, 주택과 교육 문제 등 다양한 어려운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박영호 외 2019 ; Potocky-Tripodi, 2002 ; Chang and Bemerk, 2002)). 북한이탈여성들 역시 탈북과 남한 정착 과정에서 도덕적 손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도덕적 손상이란 전쟁이나 난민 생활과 같이 위협이 매우 큰 상황에서 부도덕한 일을 당했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부적응 상태로서 분노, 우울, 자기에 대한 수치심, 죄책감 같은 현상을 유발하여 삶의 방향성을 상실케 할 수 있다(Shay, 2014). 이와 함께 북한이탈여성들이 겪는 인신매매, 가족과의 이별,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로서 고독감과 절망 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나타날 수 있다.

북한이탈여성들은 중국에 체류하면서 성폭행, 인신매매, 강제 결혼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에 남성들보다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북한이탈남성들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민영·김현경, 2007: 526 ; 이영진·김혜원 2019: 48).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전쟁, 자연재해, 고문, 사고와 같은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건이 지난 후에도 그 사건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고, 지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거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하는 질환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김상옥, 2020: 201). 이와 같은 도덕적 손상과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심리치료나 일시적 개입으로 치유되기 어렵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경험한 외상 경험과 도덕적 손상은 자신의 정체성은 물론 존재에 대한 공격이며, 이는 영성의 발현이나 절대자에 의한 치유에 의해서 근본적인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간 국내 학계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외상뿐만 아니라 외상 회복과 성장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회복을 위해 노인 합창단 활동(이상희 외, 2021: 283), 명상 상담(김광호, 2015: 460-462), 정서

조절 전략(이명순·박경, 2011: 239), 스트레스 관리(이영진·김혜원, 2019: 54) 등이 수행되었지만, 기독교 신앙이라는 근원적 차원에서 그들의 회복을 다룬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외상 후 회복과 성장에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 복지, 스트레스 대처 능력 등과 함께 신앙의 힘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효규, 2013: 186-188 ; 이숙영, 2014: 151-152 ; 박병애, 2020).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신앙이 회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만 보고되었을 뿐, 그 구체적 내용과 맥락, 교회 공동체 역할은 상세히 보고되지 않았다. 외상은 그 자체보다는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발현되고 재생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상 성장도 개인의 노력은 물론 사회 문화적 환경과 맥락의 영향을 받기에 단순한 변수의 확인이 아닌 개인들의 상호작용과 자기 삶의 해석 등 맥락 지향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김경미, 2021 ; Calhoun & Tedeschi, 2014 ; Alexander, 2007).

본 연구에서는 중국 체류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이 외상 경험과 함께 교회 공동체라는 맥락 속에서 외상의 회복 그리고 성장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탈북 후 중국 체류 경험이 있는 5명의 북한이탈여성들을 대상으로 탈북 과정에서 생성된 도덕적 손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과 같은 부정적 사건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치유 받았는가를 드러내 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여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북한이탈주민들이 교회 공동체로 귀환할 수 있는 실천신학의 방향과 함께 교회의 치유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회복과 한국교회의 치유 능력 강화와 자원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논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 문제는 북한이탈여성들이 겪은 탈북과정에서의 경험과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치유는 어떠한가이다.

II. 연구방법

밴 매넨(Van-Manen) 해석 현상학적 연구접근의 의의

본 연구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중국 체류와 복음수용 후, 남한 기독교 공동체에서 체험을 밴 매넨의 해석 현상학적 연구로 접근하고자 한다. 현상학적 연구는 방법론을 불문하고 그 기본 정향에 오리엔테이션 정향이 개인들의 주관적 경험을 재현하는 데 있지만 지오르기(Giorgi)와 콜라지(Colaizzi) 기술적 현상학적 연구는 개인들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밴 매넨이 제시한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는 하이데거(Heidegger)의 해석학적 현상학의 전통을 이어받아 연구자와 참여자의 지평을 융합하고 마치의 숲속의 빈터와 같은 상황에서 참여자들의 경

험을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 현상학적 접근은 참여자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가능케 하기에 상호 주관적 차원에서의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여성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까지 고통과 트라우마(Trauma)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했기에 참여자들의 의미구성과 함께 이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이 융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밴 매넨의 해석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기 위한 통로이자 채널로써 신체성(corporeality), 시간성(temporality), 공간성(spatiality), 관계성(relationality)이라는 ‘4가지 근본적 실존체’(four fundamental existentials)를 제시하고, 그 구조 속에서 개인들의 경험을 해석하여 이를 생생한 지식으로 산출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인 북한이탈여성들의 경우,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남한에 입국하기까지 여성이란 몸에 가해진 폭력으로 인해 남한에 입국한 후에도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타자화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탈여성들은 북한과 중국이라는 공간에서 사회적 소수자로 존재하면서 상징 폭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의 삶은 북한, 중국 체류, 남한 입국, 교회 공동체라는 시간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시간 속에서 완성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상호작용을 통해 구체적 내용이 드러난다. 북한이탈여성들의 탈북 과정과 남한 정착 과정에서의 고난은 고난 자체로 끝내지 않고, 그들의 삶의 자원으로 삼기 위해서는 고난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심을 그들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여 고난의 실천신학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참여자들의 경험을 단순히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공간의 이해를 확보하기 위한 해석 현상학적 연구가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2. 참여자 선정

참여자는 마일스와 후버만(Miles and Huberman), 살다나(Saldana, 2018)가 제시한 질적 연구의 표집 유형 중 ‘강도 표집’(intensity sampling)과 기준표집을 혼용하여 선정했다. 강도 표집이란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 충분한 동시에 강렬한 경험을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강도 표집으로 참여자를 선정한다. 연구자는 참여자 선정에 앞서 선정기준을 구성했다. 첫째, 북한이탈여성으로서 중국에 3년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을 것. 연구자가 3년이란 기간을 정한 것은 중국에서의 장기간 체류 경험을 보기 위함이다. 둘째, 중국 체류 시 인신매매, 성폭력, 강제 결혼, 노동 착취, 생명과 신체의 위협 등과 같은 인권 유린 등 피해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 셋째, 한국에 입국하여 세례받고 5년 이상 교회에 출석하고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참여자. 넷째, 외상 후 스트레스의 증상인 과도한 각성과 재경험 등과 같은 부정적 증상이 현저히 완화되거나 소실된 북한이탈여성. 이러한 선정기준으로 참여자 5명을 정한 후,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와 중국에서 선교 경험이 있는 목회자 2인에게 연구 목적과 취지를 설명했고 참여자를 의뢰했다. 참여자 선정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Table 1.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background of the research participant

참여자 (partici- pant)	나이 (age)	탈북 년도 (Year of defection)	재탈북 년도 (Year of defection again)	남한입국 년도 (Year of entry into South Korea)	신앙생활 한 기간 (a period of faith)	직업 (job)	인신매매 유형 (Human Trafficking Types)
참여자 1	30대	1998년		2007년	5년	신학생	중국公安 사칭, 인신매매 넘김
참여자 2	40대	2007년		2015년	8년	신학생	북한부터 알고 팔려감
참여자 3	40대	2007년	2013년	2013년	9년	대학원생	탈북 브로커가 인신매매 넘김
참여자 4	40대	2006년		2008년	10년	요식업	북한부터 알고 팔려감
참여자 5	50대	2003년	2015년	2017년	5년	일용직	조선족이 인신매매에 넘김

※ 참여자들의 비밀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모든 정보는 최소화하고 익명을 하였다.

3. 자료 수집

자료는 참여자들과 일대일 심층 면담을 수행하여 구성했다. 연구자는 자료에 충분성과 적절성을 염두에 두고 인터뷰를 수행했다. 참여자들과는 1인당 3회 인터뷰를 수행했고, 회당 평균 60분이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그들의 자택에서 인터뷰를 수행했다. 심층 면담 전,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했고 모든 구술내용은 녹음이 될 것을 고지했으며 참여자들은 이를 모두 수용하고 동의서를 작성했다. 심층 인터뷰 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행하였다.

4. 자료 분석

질적 연구는 통상적으로 줄 단위 분석을 선호한다(Corbin & Strauss, 2015). 하지만 줄 단위 분석은 개념이 과잉 출현하고 참여자들의 경험의 전체보다는 부분에 집중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고

려하여 연구자는 현상학적 연구에서 선호하는 문장 단위 분석으로 접근했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과 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과 인터뷰 내용을 전사한 문서 본을 참여자 별로 각각 5회씩 정독했다. 이는 자료와의 대화 과정으로써 참여자의 삶을 부분과 전체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둘째, 참여자들의 구술 중 참여자들이 중시하는 부분, 의미가 있는 부분 등을 분절하였고 여기에 주제를 명명했다

셋째, 주제는 참여자들의 언어와 그들의 체험이 담긴 언어를 사용하여 구성했다. 이런 개별적 주제들은 참여자들의 공통의 경험을 드러내기 위하여 드러난 주제로 결집했다. 드러난 주제는 그들의 체험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연구자의 언어로 구성했다.

넷째, 드러난 주제를 다시 본질적 주제로 구성했다. 드러난 주제는 일부 참여자들의 경험이 결집됐지만, 본질적 주제는 모든 참여자들의 경험을 결집한 보다 고도화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밴 매넨은 주제 구성에 있어 메타포(metaphor)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했는데, 연구자 역시 본질적 주제 명명에 있어 은유와 직유 등을 사용하여 주제를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본질적 주제를 밴 매넨이 제시한 네 개의 근본적 실존체인 신체성, 관계성, 시간성, 공간성으로 재배열했다.

5. 자료의 해석

자료의 현상학적 반성과 글쓰기에서 밴 매넨은 개인들의 체험에서 행위 민감적 지식을 발견하고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존적 탐구과정을 제시했다. 실존적 탐구과정은 어원 분석과 관용어 분석 그리고 문화·예술작품 분석으로 이어진다. 연구자는 어원 분석에서는 탈북과 엑소더스(Exodus), 관용어 분석에서는 ‘삼팔따라지’와 ‘평양공주 사역’에 대한 어원 분석을 했다. 문학예술 작품 분석에서는 북한이탈여성의 삶과 남한 입국 과정의 어려움을 담은 영화 “뷰티풀 데이즈”를 분석하여 행위 민감적 지식과 함께 독자들과 공유의 세계를 갖고자 했다.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해석은 신체성 시간성, 공간성, 관계성으로 나누었고 연구자는 각 실존체에서 북한과 중국 그리고 남한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을 해석했다.

6.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문제

(1) 연구의 엄격성

질적 연구는 타당도 신뢰도라는 용어 대신 엄격성이란 단어를 선호한다. 엄격성이란 연구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문제이다(Lincoln & Guba, 1985). 연구자는 해석 현상학적 연구의 엄

격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상학적 수궁’(phenomenological nod)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해석 현상학적 연구에서 해석은 공감의 해석을 의미하는데 (김경희, 2022; Van-Manen, 2016) 공감적 해석을 위하여 실존적 탐구과정에서 어원, 관용어, 영화 작품을 분석했고 독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일화(anecdote) 중심의 글쓰기를 했다. 그리고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생생한 표현을 중시한다(정상원·김영천, 2014).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생생한 체험이 담긴 구술 자료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현상학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다.

연구자는 링컨과 구바(1985)가 제시한 동료지지 집단을 구성했다. 동료지지 집단은 연구자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공감 차원에서의 해석을 하는 데 조언을 했고 연구의 방향성을 유지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사료된다. 동료지지 집단은 ‘평강공주 사역’을 하는 1인, 북한 이탈주민들을 돕는 목회자 1인, 해석 현상학적 방법론 전문가 1인, 총 3인으로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패짓(padgett, 2016)이 제시한 연구자 참여를 통한 확인(member checking) 전략으로 접근했다. 연구자는 연구자 해석의 자의성과 독단성을 예방하고 해석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분석과 기술을 종료한 후, 참여자들과 다시 만남을 가졌고 그들의 주관적 해석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해석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참여자들은 모두 연구자의 해석에 동의를 했다.

(2) 연구의 윤리적 문제

본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88호)을 고려하여 윤리지침을 구성하여 소속 대학 생명윤리위원회(IRB)에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SSU-202202-HR-393-1). 본 연구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사적이고 예민하며 동시에 불행한 면들을 다루고 있어 참여자들의 비밀 보장이 최우선 과제였다. 참여자들과의 관계된 모든 사항은 익명으로 표시했으며 참여자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했다. 또한 자발적 동의를 준수했다. 그리고 연구에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음을 문서로 보장했다. 참여자들이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싫은 부분은 강요하지 않았으며 인터뷰 도중 부정적인 증상이 나타나면 인터뷰를 중단하고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의뢰하고자 했다. 모든 비용은 연구자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연구 수행 중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윤리보다 더 중요한 핵심 윤리는 참여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연구자는 미력하나마 참여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신앙의 성숙 그리고 그들이 염원하는 북한 북음화와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중국 체류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사역에 기여하고자 했다.

III. 실존적 탐구 과정

1. 어원 분석

북한 탈출을 나타내는 언어는 탈북(脫北)이라는 말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탈북은 한자로 벗어날 탈(脫)자와 북녘 북(北)자의 합쳐진 말로써 단순히 북한을 벗어났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은 성경의 출애굽, 엑소더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엑소더스는 헬라어로서 Ex+Odus의 합성어이다. 여기서 Ex는 바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Odus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엑소더스는 길 밖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 단어의 숨은 뜻은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길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역시 way out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에 의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대거 탈출한 것과 그 이후의 삶을 보여주는 성경의 기사가 바로 출애굽이다. 참여자들의 탈북은 엑소더스로 볼 수 있으며,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경험했지만 그것은 구원의 길이며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길이었듯이, 참여자들 역시 북한에서의 탈출은 구원을 향해 걷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2. 관용어 분석

현재 북한이탈주민들, 특히 북한이탈여성들의 탈북 후 삶을 다룬 관용어나 속담들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과거 실향민들에게는 ‘삼팔따라지’라는 비하어가 존재했다. 여기서 ‘삼팔’은 남북한을 갈라놓은 분단의 선을 의미하며, ‘따라지’는 도박판에서 쓰던 말이다. 도박판에서 따라지는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잃고 뒷전에 앉아 도박을 구경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과거에 실향민들을 ‘삼팔따라지’라고 불렀던 이유는 38선을 넘었다는 뜻과 함께 남한 사회 중심에 진입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배회하는 아웃사이더(outside)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계에서 중국 내 인신매매 피해자 북한이탈여성을 ‘평양공주’라고 부르고, 이들과 그 자녀들을 기독교 복음으로 치유하고 양육하는 것을 ‘평양공주 사역’이라고 지칭한다. 평양공주는 고구려의 장수 온달 부인으로서 공주의 신분을 버리고 가난한 온달에게 시집을 와서 그를 장수로 만들었던 인물이다. 평양공주가 온달을 장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분과 궁궐에서의 호화로운 생활을 버려야만 했다. 북한이탈여성들은 북한과 중국에서의 생활이 호화로운 공주의 생활은 아니었지만 기존의 것을 버려야만 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평양공주가 온달을 장수로 만들었듯이 복음을 수용한 북한이탈여성들이 본인은 물론 북한에 복음을 전달하여 민족의 복음화를 이룰 수 민족의 천병(千兵)이라는 비전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문화 예술 작품 분석

북한이탈여성의 고단한 삶과 남한에서의 정착 과정을 그린 영화 “뷰티풀 데이즈”의 내용을 중심으로 영화 속에 담긴 북한이탈여성들의 삶에 대한 공감적 이해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영화 “뷰티풀 데이즈”는 북한과 중국에서의 아픈 과거를 지닌 채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 여자 (이나영 역)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대학생 쟈첸(장동운 역)은 죽어가는 아버지의 부탁으로 오래전 자신들의 곁을 떠난 엄마를 찾아 한국에 온다. 쟈첸은 자상스럽고 현숙한 엄마를 기대했으나 엄마는 술집을 운영하며 한국인 남성과 동거하고 있다. 영화의 첫 시작은 화려하고 요란한 불빛 속에서 무표정한 엄마의 모습이 등장한다. 14년 만에 나타난 아들을 무심하게 대한다.



Figure 1. The protagonist of the movie depicting the hard life of a North Korean refugee woman.

쟈첸은 엄마가 일을 끝낸 후 뒤를 쫓았고 동거하고 있는 남성과의 관계로 인해 곧 한국을 떠난다. 쟈첸이 한국을 떠나는 날, 엄마는 그에게 선물을 사주며 쇼핑백에 자신의 일기장을 넣어준다. 일기장을 읽으면서 그런 엄마의 슬픈 과거를 이해하게 된다. 엄마는 북한에서 태어났고 탈출을 해 중국에 오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에서 황 사장이라는 사람을 만났지만 그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을 하게 된다. 황 사장은 탈북한 중국 여성들을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단의 대표적 캐릭터를 지니고 있다. 이나영의 배 속에 있는 아이는 자신의 아이였지만 임신한 그녀를 폭행하고 마약 장사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조선족 남자에게 팔아넘긴다.



Figure 2. Head of a human trafficking group that sells North Korean refugee Chinese women

북한이탈주민을 다룬 대부분의 영화는 탈북이 새로운 기회를 찾거나 도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을 표현하고자 한다. 하지만 영화 “뷰티풀 데이즈”는 제목처럼 엄마의 아름다운 날들을 그리고 있다. 아름다운 날은 구체적으로 가족의 재회로 그려진다. 중국으로 간 젠첸은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엄마의 슬픈 과거와 진실을 알게 되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 한국으로 돌아온 젠첸은 엄마의 새로 생긴 아이와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 조용히 된장찌개에 밥을 비벼 먹으며 영화는 끝난다. 이 영화의 메시지는 아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엄마의 고마움과 엄마의 삶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고 있지만 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다.

“뷰티풀 데이즈”가 전하는 메시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 사회에 부담을 주는 이질적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통합의 상징이며 우리들은 갖은 고초와 고난 속에도 죽지 않고 살아온 그들의 생명에 감사와 경애를 보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IV. 연구결과

참여자들의 체험을 문장 단위별로 분석한 결과 142개의 의미가 드러났다. 참여자들의 개별적 의미를 경험의 유사성 차원에서 드러난 주제로 결집했다. 드러난 주제는 45개로 나타났다. 드러난 주제는 다시 14개의 본질적 주제로 결집했고 이를 4개의 근본적 실존체 즉, 신체성, 시간성, 관계성,

공간성으로 재배열했다. 연구결과에서는 이와 같은 근본적 실존체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1. 신체성

신체성은 참여자들이 북한, 중국 그리고 남한 입국 후에 삶의 경험을 몸의 차원에서 결집한 것이다. 현상학적 연구에서 몸은 단순히 살과 근육으로 이루어진 신체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담는 그릇이며 시간성, 관계성, 공간성의 중심에 있다.

Table 2. Consolidation of phenomenological themes at the level of the body experienced

근본적 실존체 (fundamental entity)	해석학 본질적 주제 (hermeneutics essential subject)	드러난 주제 (exposed subject)
신체성	살아서 체험한 지옥	아사 위기 자기 삶의 저주 씨받이 전락
	성 노예로 전락	인신매매의 덫 값싼 상품 취급 성의 상품화 사냥꾼의 먹잇감
	모성의 박탈	자녀와의 생이별과 애끓는 모정 사라진 나의 삶

(1) 살아서 체험한 지옥

① 아사의 위기

참여자들은 고난의 행군 시절은 물론, 그 후에도 극도의 기아에 시달렸다. 고난의 행군시절에는 죽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고 고난의 행군시기가 끝나면 풍요로운 시기가 올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고난의 행군은 끝나지 않고 또다시 연속이었다. 참여자들은 풀, 소나무, 벼의 뿌리 가루까지 먹어가며 초근목피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고 굶어 죽지 않기 위해 탈북할 수밖에 없었다.

식량난, 이루 말 할 수 없었어요. 고난의 행군 때 어머니 아사하시고, 길거리에 있는 풀을 먹는데 짐승이 먹는 풀을 우리가 먹었거든요. 뉘 풀 빼놓고 다 먹었어요. (중략)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요. 벼를 심으면 뿌리가 있잖아요. 그 벼 뿌리를 파서 가공해가지고 가루를 배급으로 나눠줬는데... 근데 그건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참여자 4)

② 자기 삶의 저주

참여자들은 중국으로 탈북 했으나 국적이 없는 약소국가 출신에게는 안정과 편안함이 보장되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사람이 아닌 동물 취급받았으며 한족의 결혼 대상자 또는 성매매 대상자로 전락했다. 참여자들은 고령의 한족, 장애인, 정신질환자, 폭력성이 강한 남성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 참여자들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고 낳아 준 부모를 원망했다.

그 집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무슨 동물원인 것처럼, 어린애들도 와서 보고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너무 창피하고 갑자기 서러움이 오고... 딸로 태어나자 아빠가 뒤집어 놓으라(죽으라고) 했는데 엄마가 눈도 새까맣고 생긴 게 너무 예뻐 뒤집어 놓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 날 좀 죽이지 왜 살려놓아 지금 이렇게 동물원에 동물 취급받으며 수모를 당하는지... 살려놓은 엄마를 원망했어요. (참여자 1)

③ 씨받이 전락

참여자들 중 매매혼에 희생양이 된 사람들은 가문의 뒤를 이을 자식을 낳는 용도로 전락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결혼 생활이 남녀 간의 친밀감, 애정을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씨받이 역할만 수행했다고 구술했다. ‘참여자 1’은 난쟁이 씨받이로 아들 출산 후,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다음날 떠나라고 했으며, ‘참여자 5’는 배우자가 있는 집안의 씨받이로 팔려갔고 임신하자 짐승 사육하듯 곡간에 가둬두고 먹이만 주었다고 구술했다.

짐승 먹이 주듯 딱 먹거리만 주는데... 어드메 바람 쐬러 나갈 때는 밖에 문 걸어놓고 딱 가둬 놓아요. 그래 가지고 막 미칠 것 같았어요. (참여자 5)

(2) 성 노예로 전락

① 인신매매의 덫

북한을 탈출한 후 중국으로 입국했으나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은 인신매매단이었다. 브로커에 속아 인신매매단에 팔리기도 했고 일부 참여자는 인정을 베풀며 다가오는 조선족에게 속아 인신매매단에 팔렸다. 도움을 가장하기도 했지만 경찰을 사칭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했다. 사냥꾼들이 짐승이 다니는 길목에 덫을 놓아 짐승을 잡아가듯 북한이탈여성들의 루트와 생활 반경을 고려하여 곳곳에 덫을 놓았다.

중국 친척 집에 식량을 얻으려 중국 땅에 도착하니 강가에 조선족들이 몇 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북한이탈여성을 지네들이 데려가려고 나와 있었어요.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으니까 저는 같은 민족으로서의 생각하는 마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인신 매매단에 팔아먹으려는 속셈이 있는 걸 몰랐어요. (참여자 5)

② 값싼 상품 취급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인신매매에 희생되었지만 국적 없는 설움을 느꼈다고 구술했고 북한 당국을 증오했다. 그들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고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건처럼 중국 돈 7천 위안에 팔려갔다. 중국 돈 7천 위안은 한화로 140만 원에 불과하다. 참여자는 자신들이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에 쫓기는 신세이기에 값싼 상품 취급을 당했다고 이야기했고, 매매혼의 당사자인 한쪽은 돈을 주고 산 물건 취급을 했다. ‘참여자 3’은 한국에 입국한 후 아들을 찾기 위해 할 수 없이 한쪽 남편도 불러들였는데 과거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직도 자신의 아내를 돈을 주고 산 물건 취급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폭행을 심하게 하니 112에 신고를 했는데 출동 경찰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북한 여자를 중국에서 돈을 주고 샀다. 그 여자 따라 한국 와서 결혼 등기도 했고 (중략) 나는 돈 주고 내 와이프를 샀기 때문에 때리는 것도 내 권한이다. 지금 내 물건이라는 거지요. (참여자 3)

③ 성의 상품화

참여자들의 성은 철저하게 상품으로 전락했다. 참여자들과 결혼한 중국 남성들은 단순히 잠자리 용으로만 대응했다. ‘참여자 4’는 중국 남성과 잠자리를 거부했다가 목이 졸려 죽을 뻔했고, ‘참여자 1’은 식당에 취업했지만 술 시중드는 일을 강요당했다. 참여자들은 노동력의 상품화를 넘어 가장 고유한 성마저 상품화되는 경험을 했다.

말도 더듬고 모자라는 머저리 같은 사람한테 팔려 갔어요. 보통 사람을 만났으면 자식 낳고 살 수도 있었겠지요. 그 유전자를 받은 자식이 훗날 저를 얼마나 원망하겠나? 하는 생각에 배란일에 잠자리를 거부하다가 목 졸려 죽을 뻔 했어요. (참여자 4)

④ 사냥꾼의 먹잇감

참여자들은 중국으로 월경했으나 그들에게 보장된 것은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식량뿐이었다.

‘참여자 1, 3, 5’의 구술에 의하면 인신매매단은 중국 공안과 결탁하여 북한이탈여성들을 잡아들였고 일부는 사악한 조선족과 연계를 맺고 있다고 했다. 참여자들은 같은 동포마저 믿을 수가 없었다. 동포의 호의 뒤에는 인신매매라는 검은 마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여성들을 노리는 것은 인신매매단뿐만 아니다. 중국 공안도 북한이탈여성들을 먹잇감으로 알고 달려들었다. ‘참여자 3’은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었으나 한국 돈 2천만 원을 뇌물로 주고 풀려나왔다. 그 돈은 사람을 살리려는 한국의 구출 사역하는 선교 단체에서 지불했던 것이다. 이렇듯 중국은 사냥꾼들의 천지였고 참여자들은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 날에 중국 공안이 돈 십만 위안 요구했대요. 중국 돈 10만 위안은 한국 돈 2천만 원. 북송 안 시키려고 부르는 대로 준다고 했는데 10만 위안 부를 줄 생각 못했는데 일단 사람 살리자 해가지고 이 사람이 3일 만에 돈을 만들어서 주고 나왔어요. (참여자 3)

(3) 모성의 박탈

① 자녀와의 생이별과 애끓는 모정

참여자들은 중국 남성과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은 했지만 자녀에게만큼은 어머니로서의 본능적 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참여자 1’은 난쟁이에게 씨받이로 팔려가 아들을 출산했으나 정 줄 시간조차 없이 다음날 자식과 이별을 하였다. ‘참여자 3’은 자녀와 생이별을 했으나 생이별의 아픔과 함께 그리움으로 고통을 받았다. 지옥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교화소에 끌려가서도 오로지 아들 생각뿐이었고 아들이 보고 싶어 병이 나기도 했다. ‘참여자 5’는 딸이 생후 18개월 일 때 북송되었다. 남한에 입국하고 16년 만에 딸을 찾아 영상통화를 했으나, 16년이라는 기간은 어머니와 딸을 바다만큼 갈라놓기도 했다. 딸은 어색해했고 참여자는 또다시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자녀와의 생이별을 애간장이 녹고 피눈물이 나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때 낳자마자 시어머니가 애를 안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앤데 내가 안아봐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어차피 너는 이제는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정을 주지 말라 이라는 거예요. (중략) 그때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3천 위안 돈을 주고 이걸 가지고 내일 떠나라는 거예요. (참여자 1)

② 사라진 나의 삶

모성과 함께 여성의 성도 사라졌다. 참여자들은 북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저주했지만 남성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또한 저주했다. 탈북 남성들은 여성들과 동일하게 체포에 대한 두려움, 인권 유린을 경험하지만 적어도 성에 대한 착취는 당하지 않는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자기가 사라진 삶으로 의미를 구성했고, 중국 남성들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대상 내지는 후손을 낳아 주는 아이 낳는 기계로 전락했다고 하였다. 이들의 삶은 존재하지 않았다.

너무 억이 막혀가지고 이 환경을 어떻게 내가 타파할 것인가? 오직 그 생각밖에... 저 사람하고 같이 억지로 자라면 내가 어떻게 잘 것인가? 북한에서 남자를 모르고 살았는데 그것도 민족이 다른 한족하고 사랑하는 게 말이 돼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참여자 5)

2. 시간성

현상학적 연구에서 시간성이란 단순한 물리적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개인들이 자신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시간을 의미한다. 참여자들의 시간은 세상에 대한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눌 수 있다.

Table 3. The convergence of phenomenological themes in the dimension of experienced temporality

근본적 실존체 (fundamental entity)	해석학 본질적 주제 (hermeneutics essential subject)	드러난 주제 (exposed subject)
시간성	세상 믿음의 붕괴	돈의 배신 가족의 배신 폭군 같은 인색한 남편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의 전회	인본주의 사고의 잔재 세상 욕망 버리기 니스웨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새로운 생명	고난의 의미 체험 기적의 체험 나를 살리신 하나님
	하늘 가는 길에 동행	하나님에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 읽기 자기 안에서의 행복
	하나님 사랑의 전파	선교 제일주의 소명의 체험 가족 구원 열심 병든 북한의 영혼을 위한 기도

(1) 세상 믿음의 붕괴

① 돈의 배신

참여자들이 세상에서 보낸 시간은 배신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지만 중국으로 탈출한 후 돈의 위력을 절감했다. 처음에 참여자들은 돈이 진리인 줄 믿었다. 고난의 행군 시절에 가족이 가족을 배신하고 심지어 팔아넘기는 것까지 목도한 참여자들은 세상은 냉정한 것으로 의미를 지었고 돈 외에는 믿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돈이 삶의 의미를 가져다주지는 않았다. 참여자들은 남한 노동자의 1달 급여도 안 되는 돈에 팔려 갔지만, 그 돈은 모두 브로커의 몫이었다.

암록강을 건너는 것을 도와준 브로커가 우리를 속이고 중국 인신매매단에 판 거예요. 강을 건너니 차가 한 대 있고 저희를 태우고는 밤새도록 그냥 가는 거예요. 세워달라고 소리치고. (참여자 2)

② 가족의 배신

믿었던 돈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후에 가족으로부터도 배신을 당했다. 북한의 가족들은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했고 ‘참여자 2’의 경우 북한에서 결혼했으나 남편이 교통사고로 5일 만에 사망했다. 하지만 북한의 시가는 미망이 된 참여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군대에서 제대하면 시동생과 결혼을 시키려고 했다. 아버지가 뇌혈병으로 쓰러지자 생활고로 주택을 매각했으나 그 돈을 삼촌이 편취해 가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가족으로부터도 위로나 위안을 얻지 못했다.

저는 끔찍하게 23살에 결혼 5일 만에 남편의 죽음을 제 눈에서 봤고, (중략) 남편이 죽었는데 시댁에서는 저를 안 내놓겠다는 거죠. 시동생이 또 저하고 동갑인데 군사 복무 돌아오면 저랑 결혼시키겠다는 거예요. (참여자 2)

③ 폭군과 같은 인색한 남편

‘참여자 5’의 남편은 북한의 가족들과 연락을 하자 전화비가 많이 나온다고 전화를 끊었고 ‘참여자 3’은 남편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매일이 통곡으로 지낸 밤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 4’는 스트레스와 함께 극도의 신체적 고통을 경험했다. 참여자들은 돈에 팔려가면서 남편에게 한 가닥 애정을 기대했지만 참여자들의 모든 남편들은 폭군이었고 성에 굶주린 짐승에 불과했다

사람이 싫은 남자하고 사는 게 진짜 힘들죠. 잠자리 거부했다고 목을 조르고 죽이려 했어요. 그것

도 처녀로 와 가지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 눈에서 막 불이 뿜어져 나갔던 것 같아요. 눈에 독기가 서리니 시부모님이 의사를 불러 주사를 놔주기도 했지요. (참여자 4)

(2)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의 전회

① 인본주의 사고의 잔재

참여자들은 세상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섰다. 참여자들은 중국 체류 당시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경우도 있었고 남한에 입국한 후 교회에 출석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 실망했고 세상에 대한 믿음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끊임없이 향하고자 했다. 참여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신들은 늘 피해만 보고 살았는데 죄인이라는 말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했다. 자신도 모르게 뇌리에 박힌 북한에서의 세속적인 교육 때문에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경에 대한 불신은 아직도 있었고 단지 교회 출석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식사와 물품을 받으려고 출석하기도 했다.

언니가 죄인이기 때문에 언니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회개해야지만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무슨 소리냐? 내가 왜 죄를 지었느냐? 나는 당하기만 했는데 뭘 내가 죄인이야? 하나님이 나를 한 번에 받아주는 게 옳은 거 아니냐? 했어요. (참여자 1)

② 세상 욕망 버리기

하지만 참여자들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서서히 세상의 욕망을 버리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중국에서의 신변 보호와 남한에서의 물질적 후원 등 수단적 목적으로 교회에 출석했으나 세상으로 향한 욕망이 덧없음을 알았고 교회에 열심을 냈다. 참여자들 중에서 신학교에 입학한 참여자는 임대아파트를 거부했다. 좁고 웅색한 교회에서 거주하며 신학 공부를 시작했다. 또한 물질적 풍요보다는 영혼의 풍요를 원했고, 돈을 많이 주는 직업보다는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용이한 직업을 선택했다. 참여자는 서서히 세상의 욕망을 버렸다.

하나원에서 임대아파트 안 받겠다고 각서 쓰고 나왔어요. 2년 4개월 동안, 하나원 나와서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게 아니면 제가 여기까지 못 와요. (참여자 2)

③ 니스웨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니스웨로 향했던 요나와 같은 경험을 했다. 몸은 교회에 있었지만, 정신은

세상으로 향했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그것만이 자신의 억울한 삶을 보상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다. 참여자들은 후일 자신들에 대한 보상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당시만 해도 자기 스스로 노력하여 자신의 길을 찾고자 했다. 하지만 요나가 니느웨로 향하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듯이 참여자들 역시 세상으로 향하다가 징계를 받았다. 도산을 하기도 했고 몸에 병이 들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도산과 질병을 하나님의 징계로 믿었고 하나님의 길로 향했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현장 노가다 했어요. 사실 신학교 얼렁뚱뚱 졸업하고 돈을 벌어야겠다고 주의 일을 안 하니 하나님이 다 쳐버렸어요.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되니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들었지요. (참여자 2)

(3) 새로운 생명

① 고난의 의미 체험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삶이 북한에서부터 중국, 남한에 이르기까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라고 의미를 구성했다. 하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고난에 뜻이 있다는 자기 해석을 했다. 참여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더 강하게 하려고 시련을 주신 것이며 언젠가는 자신들은 높이 들어 쓰시려고 고난을 겪게 하셨다는 해석을 했다. 참여자들은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해석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이렇게 고생은 시켰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들어 사용하시려고 이 고난을 겪게 하셨다는 이 말이 제게 큰 감동이었어요. 나도 이제는 누군가의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요. (참여자 1)

② 기적의 체험

참여자들이 삶은 기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고난으로 점철되었지만, 고난과 고난 사이에는 항상 기적이 있었다. ‘참여자 1’은 출산 다음 날 헤어진 12년 된 아들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기도하자 응답이 일어났고, ‘참여자 4’는 한국에서 탈북한 언니와 아버지와 재회하기도 했다. 신학교에 진학한 ‘참여자 1’은 경제적 사정에 주저했으나 등록금 걱정하지 말라며 도와준 목사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많은 참여자들은 중국에서 체포의 위협과 체포된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을 구하러 옥문을 열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비록 뇌물을 받았지만, 탈출을 도와준

공안도 있었다.

참 신기한 거는 우리 언니가 아버지를 모시고 2007년도에 온 거예요. 한국에 와서 만났는데 아버지는 북한에서부터 치매를 앓아서 여기가 한국인지를 몰라요. 근데 저는 막내딸이니 알아봤지요. (참여자 4)

③ 나를 살리신 하나님

참여자들은 고난과 기적을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시기 위한 원대한 계획으로 해석했다. 참여자들은 중국에서 비인간적인 대우와 혹독한 고통을 당했고 자살을 시도했다. 자살을 시도하지 않은 자들은 늘 죽음의 그림자와 동행했다. 참여자들의 탈북은 출애굽 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만큼 험난한 길이다. 하지만 출애굽 후,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셨듯이 자신들에게도 탈북이라는 긴 여정 속에 함께 하셨다고 믿었다. 참여자들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탈북과 체포, 복송과 재탈북의 연속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을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는 것으로 보았다.

잡혀 복송되니 하나님의 존재에 의지하게 되었어요. 북한 교화소는 생지옥이었고 4년 동안 뼈만 남고 허약 3도 판정을 받고 죽을 날을 기다렸어요. 1년 형기 단축으로 살아 나왔어요. (참여자 5)

(4) 하늘 가는 길에 동행

① 하나님에의 의지

참여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모든 짐을 다 가져간 것으로 의미를 구성했다. 모든 참여자들은 아직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불안한 상태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에 세상 염려를 내려놓았다고 구술했다. 참여자들은 초기에는 자신의 유능함을 믿고자 했다. 하지만 탈북 후 중국에서부터 참여자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무력감을 체험했다. 남한에 입국한 후, 자신의 무력감을 또 한 번 체험하고 하나님에게 맡기자 자신은 유능한 인간으로 바뀌었다고 구술하기도 했다.

등록금과 생활비가 없는 그런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거든요. (생략)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그것을 내려놓는 훈련부터 해봐라. 그래서 그때 저는 말하는 대로 믿었어요. (참여자 1)

② 하나님의 마음 읽기

참여자들은 자신들은 비록 남한의 교인보다는 기독교 복음을 늦게 받아들였고 성경적 지식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데에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구술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곁에 계시고 특히 자신들을 북한에서 구출하신 이유가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라는 우상주의에 빠진 타락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선택한 것으로 보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았듯이 우상숭배에 빠진 북한 주민을 버리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와 아론이 있었듯이 진리를 모르고 사람이라는 우상에 빠진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들이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고 의미를 구성했다.

노아 홍수 사건 뒤에 타락한 백성들에 대해서 짝 발표를 하면서 여호수아부터 가나안 땅부터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정을 들여다봤어요. (참여자 1)

③ 자기 안에서의 행복

참여자들은 하나님의 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행복을 찾았다고 구술했다. 그들은 늘 자신 속에 간혀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월했다. 초월한 순간 이미 자신들의 마음속에 천국과 평안과 행복이 있음을 자각했다. 참여자들은 범사에 만족했고 언제나 불만과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들이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자기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의 북한 탈출은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시도였으나 남한에 입국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자기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능력이 생성되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고 왜 이 길을 보내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중략) 내 길이 이거구나! 하나님이나 나를 이렇게 들어 쓰시려고 오늘날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구나! 이제는 내 목숨이 소중해서 못 죽겠는 거예요. (중략)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 행복해졌어요. (참여자 1)

(5) 하나님 사랑의 전파

① 선교 제일주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의 중심에 복음 전파를 두고 있다. ‘참여자 2’는 중국에 있는 남편으로부터 귀국을 종용받았으나 선교의 사명 때문에 거절했다. 그는 남편과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남편과 가족 못지않게 선교가 중요하고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편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고 믿

었다. 참여자들은 ‘평강공주 사역’이라는 말을 즐겨 쓴다. ‘평강공주 사역’이란 중국에 있는 북한이 탈여성들을 돕는 사역이다. 참여자들은 바보온달을 고구려의 맹장으로 만든 평강공주를 떠 올렸다. 평강공주 역시 온달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궁에서 쫓겨났지만 남편을 장군으로 만들었다. 북한이탈 여성들은 북한에서 쫓겨난 평강공주이지만 북한을 복음화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증진할 수 있는 선도자라고 믿기 때문이다

남편이 중국 국적 해줄 테니 신학 때려치우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남편이 주님을 알아야 중국에서 사역을 하지요. 이곳에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중국에 들어가야 교회 세우고 평강공주 사역부터 할 수 있어요. (참여자 2)

② 소명의 체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은 자신의 삶 전체를 바꾸게 한다. 참여자들은 늘 꺾박받고 대우받지 못한 존재였다. 자존감이 저하되었고 자신은 무능하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부정적 자기 평가에 빠졌다. 하지만 교회에서 그들은 쓸모 있는 사람이란 말을 들었고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북한에서 해왔던 모든 사상의 중심은 인간이라는 허무맹랑한 말보다 그들의 심금을 울렸다. 중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참여자들에게 남한 입국은 풍요로운 삶을 위한 입국이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입국이였다. ‘참여자 1, 2’는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 그들의 신학 공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함이며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공유하고자 함이었다. 신학을 공부하고 교역자가 되어 자신이 받은 고난과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체험을 마음껏 설교하고 간증하고 싶어 했다.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울고 힘들게 사는 거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나도 저랬어. 그런데 나는 지금 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 행복해졌어. 너 좀 들어오면 안 되겠니?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참여자 1)

③ 가족 구원 열심

참여자들은 가족 구원과 병든 북한을 위한 기도예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다. 신앙 없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한편, 믿는 자가 자기 가족을 전도하지 못했음에 회개하고 구원하고자 한다.

남편은 귀국을 종용하고 저도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1개월 동안 남편의 구원과 신

학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남아 신학을 공부하라는 거예요.(참여자2)

④ 병든 북한의 영혼을 위한 기도

참여자들은 아직도 중국 전역을 유리 방황하는 북한이탈여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중국 내 북한이탈여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민족처럼 고통스럽다고 구술했다.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참여자들은 북한에 있는 2,400만 명의 영혼들은 우상 종교나 다름없는 김일성 주체사상 유일사상에 물들어있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세계의 중심, 역사의 주인이라는 허무맹랑한 구호에 빠져있는 개인들로 보았다. 이러한 북한의 주체사상의 선전 구호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종교와도 같았다. 참여자들은 주체사상이 뇌리에 깊숙이 빠져있는 북한 주민들을 피해자로 보았다. 참여자들 모두는 자신의 기도의 중심에는 선교가 있고 그 선교의 방향은 병든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기도라고 의미를 구성하기도 했다.

요한복음 5장 4절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는 북한에 있는 영혼들이예요. 북한을 구원하는 길은 주체사상에 빠진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급선무예요. (참여자, 3)

3. 관계성

관계성은 참여자들이 가족과의 관계, 중국에서 압제자들과의 관계, 교회 공동체에서 교인들과의 관계로 나눌 수 있다.

Table 4. The convergence of phenomenological themes in the dimension of the experienced relationship

근본적 실존체 (fundamental entity)	해석학 본질적 주제 (hermeneutics essential subject)	드러난 주제 (exposed subject)
관계성	삶의 기반 박탈	생계 수단이 끊어짐과 가족관계의 와해 나의 땅을 떠나 타자의 땅에서 낚싯줄이 가족 구출을 위한 피나는 노력
	시선의 폭력에 노출	거미줄 감시망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 피해의 의식
	하나님 형상의 회복	용서하는 하나님 마음 갖기 겸손한 삶 성경적 세계관

(1) 삶의 기반 박탈

① 생계 수단이 끊어짐과 가족관계의 와해

참여자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식량 배급의 단절로 인해 극심한 기아를 경험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극소수 고급 당원을 제외하고는 직업의 유무, 지위 등을 불문하고 극도의 궁핍을 경험했다. 참여자들의 구술에 의하면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평민이 생존에는 유리했다고 한다. 참여자들은 모두 생계 수단의 끊어짐을 경험했고 이는 가족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사회적 지위가 없는 사람들은 밭에서 흙쳐 먹기도 하고 장마당 장사를 해 생계를 이어갔지만, 당원이나 교사 등은 사회적 체면과 통제 등으로 인해 장사를 하지 못했어요. (참여자 4)

② 나의 땅을 떠나 타자의 땅에서 날품팔이

‘참여자 1’은 탈북하기 전, 중국 국경을 넘나들며 일당을 받고 일을 했으며 ‘참여자 2’는 병든 부모를 뒤로하고 청진으로 장사 떠나가도 했다. 참여자들은 떠돌이 날품팔이로서 중국과 북한 전역을 표류하였다.

중국 동네 집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일감이 있냐? 물어보면 있다고 하면 옥수수 심어주고, 콩 심어주고, 중국 돈 450위안을 벌여 가지고 와요. 그때 중국 돈 450위안이면 진짜 부자 중의 부자인 것 같았어요. (참여자 1)

③ 가족 구출을 위한 피나는 노력

참여자들은 가족은 짐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삶의 목적이자 희망이었다. 참여자들은 중국과 한국에서 밤낮없이 기계처럼 일에 매달렸다. 참여자들은 일에 매달리며 고통을 잊고자 했고, 북한에 있는 가족을 남한에 데려오는 것을 생의 과업으로 삼았다. ‘참여자 1’은 엄마를 남한으로 데려오는 게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임종 소식을 듣고 구안와사가 와 한동안 고통을 받기도 했다.

2009년 5월 10일 엄마를 탈북시키려 다 준비가 됐는데 4월에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게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때 그 전화 받고 제가 그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 갔고 제가 깬 때는 풍이 와서 입이 돌아갔어요. (참여자 1)

(2) 시선의 폭력에 노출

① 거미줄 감시망

참여자들은 중국으로 탈출했으나 중국은 안전지대가 아니다. 탈출을 시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구타를 당했으며 이들이 중국에서 억지로 맺은 가족들은 모두 감시자였다. 참여자들은 탈출을 염두에 두고 낄낄팔이를 해서 돈을 벌었지만 가족들이 감시를 했고 이웃이 감시를 했다. ‘참여자 1’은 화장실 가는 것도 시아버지가 누워있는 곳에서 용변 보라고 강요당하기도 했다. 참여자들의 구술에 의하면 중국 농촌은 한동네가 친척들로 이루어져 있어 동네 사람 모두가 감시자였다.

화장실도 밖에 못 나가게 했어요. 도망갈까 봐. 아버지는 증풍으로 한쪽 구석에 누워 계시고... 이런 강냉이 떼 있잖아요. 방 안에 이렇게 두루룩 가려놓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보라는 거예요. (참여자 1)

②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

참여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라는 구술을 했다. ‘참여자 5’는 식량을 구하러 두만강을 건너니 기다리고 있던 조선족의 호의에 넘어가 인신매매단에 팔렸고, ‘참여자 1’은 중국 공안을 가장한 인신매매단에 걸려 물건 취급당하며 팔렸다. 교회 공동체를 만나기 전, 그들은 사람을 가장 두려워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었지만 못 물어봤어요. 물어보면 또 약점 잡히고... 또 당할까 봐. 늘 사람한테 당했기 때문에. (참여자 1)

③ 피해 의식

북한에서는 사람이 제일이라는 주체 철학을 강제적으로 학습했지만, 참여자들은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다. 따라서 그들은 피해 의식이 생성될 수밖에 없었다. 참여자들은 남한에 입국한 후에도 초기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유연하지 못했다. 남한 주민들이 호의를 베풀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의를 의심했다. 이로 인해 남한 주민들과는 불협화음을 맺었고 불편한 존재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인격적 특성이 아니라 북한과 중국에 체류하고 있을 당시, 사람들로부터 호의와 지지를 받은 것보다 지독한 피해를 받았기에 생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한테 팔렸고 늘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했잖아요. 늘 무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슬픔이 있고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또 업신 당하고 여기 와서도 언제든지 또 팔리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참여자 4)

(3) 하나님 형상의 회복

① 용서하는 하나님 마음 갖기

참여자들은 증오의 대상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돈을 주고 사 왔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중국 남편부터 자신을 팔아넘긴 인신매매단, 인권을 유린했던 권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을 받아들이고 신앙이 성숙해짐에 따라 자신의 원수를 용서하고자 했다. 참여자들은 정죄는 하나님의 몫이고 사람의 몫은 용서라는 사실을 체험했고 가족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다.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복한 주민들 속에서 저를 먼저 탈북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나를 중국에 팔아넘긴 브로커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게 되었어요. (참여자 3)

② 겸손한 삶

참여자들은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했을 때 내 안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풍요로움이 생겼다. 이와 함께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진실을 깨달았다. 자신이 내면에 그리스도가 있으니 매사에 조심하고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고자 했다.

시편의 말씀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였듯이 두 번의 탈북을 하여 온갖 고난을 당한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었고, 이런 과정에서 마음속 아픔이 치유되고 삶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참여자 5)

③ 성경적 세계관

참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북한에 있을 당시에는 주체사상에 입각한 세계관을 가졌으며 중국으로 탈출한 후에는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했다. 그들은 오로지 생존이 유일한 목표였고 생존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돈 이외에는 믿을 것이 없었다. 하지만 복음을 수용한 후 그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고난은 더 큰 영광을 주기 위해 예비한 것이니 자신들은 북한이 수복되

고 복음이 전파될 때 예비 된 존재라는 정체성을 구성하기도 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셨다. 아들까지 죽이면서... (중략) 내 죽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얼마나 가치 있을까? 이런 환란과 고통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 했다는 것이 느껴지자, 복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소명을 갖고 있어요. (참여자 1)

4. 공간성

Table 5. Gathering of phenomenological themes in the dimension of experienced spatiality

근본적 실존체 (fundamental entity)	해석학 본질적 주제 (hermeneutics essential subject)	드러난 주제 (exposed subject)
공간성	중국이라는 감옥	사악한 공권력 불안한 체류
	가나안의 꿈과 현실	목숨을 담보로 한 탈출 소망의 땅 한국 국적의 위력
	로템나무 아래서의 심	내 삶의 심터 성경 자기의 개방과 치유 눈물의 치유 공동체

(1) 중국이라는 감옥

① 사악한 공권력

참여자들은 북한, 중국, 한국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는 공간의 체험을 했다. 참여자들은 중국 체류 시 공권력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참여자들은 불법 체류자였지만 인간으로서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권력자와 중국 공간은 참여자들을 보호하기보다는 탄압했고, 중국인들로부터 받은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했다. 참여자들의 구술에 의하면 만일 악마가 있다면 그것은 중국의 공간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표현처럼 중국의 공권력은 사악했다. 이와 같은 사악한 공권력 아래에서 그들의 중국 체류는 하루하루가 불안과 생명의 위협이었다. 북한의 공권력은 무력했고 중국의 공권력은 잔인했다.

중국 공간이 북한에 갈 거냐? 다시 팔려 갈 거냐? 무서운 거예요. 저를 팔아 달라 했더니 이번에는 진짜 좋은 집에 팔아줄 거다 한 게 결혼해서 같이 데리고 살 사람이 아니라, 123cm 난쟁이의 씨받

이로 팔려 간 거예요. (참여자 1)

② 불안한 체류

참여자들은 호구, 한국식으로 말하면 호적을 만들고자 했으나 중국인들은 호구를 만드는데 협조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해했다. 중국인들은 참여자들을 무국적자로 만들어 중국에 묶어두려고 했다. 호구가 없는 상태에서 탈출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 집에서는 호구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집은 아니예요. 재네끼리 하는 말 들어 보면, 온 지 몇 달도 안 되는 게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일거리 찾고 같은 민족을 찾아서 돈 보내는 여자가 호구를 해주면 상해를 갈지? 홍콩에 갈지? 어떻게 아는가? 절대 안 해 주는 거예요. (참여자 5)

(2) 가나안의 꿈과 현실

① 목숨을 담보로 한 탈출

참여자들에게 있어 한국은 가나안이었다. 참여자들은 중국에 유수 되어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탈출했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경로로 남한에 입국했지만 모두 '악어의 강'(메콩강)을 건너야만 했다. 악어가 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며 상처가 난 사람이나 생리를 하는 여자가 있으면 피 냄새를 맡기 때문에 자수를 하라고 하며 추가 요금을 받았다. '참여자 4'는 추가요금을 냈고 강을 건널 때까지 일행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굉장히 마음을 졸였다.

브로커가 생리하거나 상처가 있는 사람이 타면 악어가 피 냄새를 맡고 달려들어 배를 전복시키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며 위험수당으로 2배를 요구했다. 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정착금 받아 주기로 하고 마음을 졸이며 배를 탔어요. (참여자 4)

② 소망의 땅 한국

참여자들은 라오스에서는 철쭉 같은 밤을 이용해 산을 가로지르며 탈출했지만, 그것은 빛의 여정이었다. 참여자들에게 한국은 소망의 땅이었다. 참여자들은 한국에 도착하면 정착금을 준다는 말을 믿었고, 중국에서 위성 TV로 본 한국은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었다.

중국 TV 틀면 한국 방송이 잡히거든요. 한국 드라마 '첫사랑'이라는 거 봤어요. 그거 보면서 한

국이 잘 사는 나라구나. 북한은 헐벗고 굶주리고 강퍽 뒤지고 실업자들이 많은데 얼마나 못 사는 나라인데... 우리는 서울이라는데 언제 가보겠나? (참여자 5)

③ 국적의 위력

참여자들은 한국에 온 후 국적을 취득했다. 그리고 비로소 보호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 무국적자로서 늘 체포와 송환의 불안 속에서 지낸 참여자들에게 국적은 남한 사람과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국인과 결혼한 ‘참여자 3’은 중국과 한국에서 폭력을 당했는데 한국에서는 112에 신고하자, 경찰이 출동했고 보호를 받았다. ‘참여자 2’는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 여권을 만들고 한국인 자격으로 중국을 다시 방문했다. 그를 탈북자로 오해한 중국 공안은 ‘참여자 2’를 복송시키려고 무례하게 대하다가 대한민국 여권을 보여주자 공손해졌다.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국적이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이렇듯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패와 같은 기능을 했다.

복송이 아니라 나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랬더니 여권 보여 달래요. 내가 왜 너희들한테 여권을 보이나? 고 당당하게 나왔어요. 언다 대고 소리치느냐? 우리 대한민국 경찰은 너희처럼 이렇게 큰소리치면서 보겠다는 경찰이 없다. 먼저 깡뚫이 인사하고 보자고 한다. 북한이탈여성이 한국 국적 취득하고 중국 들어간 게 제가 처음이었어요. (참여자 2)

(3) 로댐나무 아래에서의 쉼

① 내 삶의 쉼터 성경

참여자들에게 있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 외에 북한 중국을 거쳐 പി진된 육신과 영혼이 쉴 수 있는 쉼터였다. 중국에서 복음을 수용한 참여자는 탈출 내내 성경을 끼고 있었고 남한에 입국한 후에는 삶이 피곤하고 곤고할 때마다 성경은 위로가 되었다.

태국으로 출발할 때 1개월 전부터 금식 기도해요. 무사히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공안한테 잡히면 우리는 다 복송돼야 하는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성경을 항상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됐어요. 중국 공안이 우리 차에 올라와 다 내려오라 하고 짐 조사했는데 성경책 못보고 전원 통과해 준 거예요. (참여자 2)

② 자기 개방과 치유

참여자들은 초기에는 교회 출석한 후에도 교인들과의 거리가 있었으나 점차 자신의 이야기를 꺼

내기 시작했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인신매매 팔려 강제 결혼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용기를 얻었고 교회 간증이나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개방하자 치유가 일어났다. 참여자들에게 있어 교회 공동체는 치유의 공동체이다. 참여자들은 저마다 깊은 상처를 지니고 있었다.

속상한 것 있음 이야기 해보라는 말에 나도 모르게... 중국에 있는 애가 보고 싶다고 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뭐가 이렇게 숨이 팍 쉬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팍 터뜨리고 나니까 뭐가 없었던 것이 툭 열리는 것 같은... (참여자 5)

③ 눈물의 치유 공동체

참여자들은 가족들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많다. 극도의 궁핍과 고난 속에서는 피붙이도 제 살길을 찾아 서로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교우들이 함께 울어주는 것에 감동했으며 이들은 교인들의 뜨거운 눈물 속에서 사랑을 발견했다고 한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삶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고 구술했다. 따라서 타자의 고통이나 슬픔에는 공감하지 못했다. 참여자들은 교회에 출석한 후 가장 큰 변화가 남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았으며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구술하기도 했다.

씨받이로 중국 체류 시 나온 자식이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교인들이 막 눈물 막 뚝뚝 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참여자 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외상 경험과 성장에 대한 해석 현상학적 연구이다. 연구자는 북한이탈여성의 도덕적 손상과 외상의 구성 요소나 맥락보다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회복에 방점을 찍고 밴 매년이 제시한 신체성, 시간성, 공간성, 관계성이라는 4가지 근본적 실존체 틀에서 분석했다.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여성은 북한에서는 물론 중국에서도 생존과 가족을 위한 이중의 노동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인신매매와 강제 결혼과 같은 극한의 고통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며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이들을 팔았던 조선족 인신매매범, 반죽음을 만들었던 보위부원, 무차별 폭력을 가했던

중국인 남편, 북한과 중국에서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었다. 이들은 상처의 회복뿐만 아니라 아직도 팔려 다니는 재중 북한이탈여성을 돕는 자로 쓰임 받으며 그들에 대한 선교 의지로 구체화 되었다. 참여자들은 상처 입은 전도자로서 자신의 상처 치유 경험을 보다 대승적이고 성경적 차원에서 확장했다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개진하고 중국 내 북한이탈여성을 도울 수 있는 기독교 선교 차원에서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그간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외상 후 성장은 사회적 지지와 함께 개인들의 탄력성이 발견되어 자기의 효능감과 자존감을 향상함으로써 외상 후 성장에 드러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정경임·전혜성, 2020 : 428 ; 이순선, 2018: 110). 하지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외상 후 성장은 참여자들의 경우 사회적 지지와 자기 효능감의 회복보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섭리에 의해 발견된 것이며, 이는 참여자들이 지난 삶의 비극과 외상 경험을 해소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원인이었다. 이와 함께 교회 공동체의 지지 역시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역에 있어 그들이 사회 재적응과 함께 교회 공동체의 자원을 결집하여 외상 후 성장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둘째, 국가 가부장제에 의한 북한 여성들의 희생과 이를 극복하는 것에 대한 논의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북한은 체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국가 가부장제를 부활시키고 여성은 혁명 전사를 키우고 가족과 사회를 지키는 꽃으로 재현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실패를 여성을 통해 극복하려는 전략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들은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고 가족부양과 돌봄을 위해 고된 노동을 감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미자, 2010 ; 김경희 외, 2016). 참여자들은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국가 가부장제 희생양이었고 노동뿐 아니라 자신의 몸을 유린당하면서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해야만 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북한과 가족들로부터 배신당한 경험을 했다. 이러한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교회의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치유만이 이들의 삶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북한이탈여성들의 외상 후 성장의 치유에 대한 심리·정서적 접근이 이루어져 왔지만(김윤아·김미영, 2016 ; 이상희 외, 2021 ; 김현경, 2011), 이들의 상처는 심리·정서적 문제가 아니라, 존재적 문제이며 영혼의 문제이다. 따라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할 것이다. 교회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방주와 같은 안정감과 애착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탈북과정에서 단절과 고립 그리고 소외를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소통의 장이자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장소이다(이순형 외, 2015 ; 이희철, 2019). 교회의 선교 기능 중 소외된 영혼들에 대한 치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교회 또는 교회 연합체가 중심이 되어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정서적 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확보하고 장소 제공, 예산의 지원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 사회에서조차 치유하기 힘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만 할 것이다. 연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참

여자들에게 있어 교회는 보호처이자 치유하는 곳이었다.

셋째, 북한이탈여성들에 대한 신학적 관점에서 재조명이다. 사회과학에서는 대부분 북한이탈여성을 외상과 다양한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지니고 이 땅에 온 사람들로서 적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경미, 2021 ; 이명신, 2020). 하지만 북한이탈여성들이 보이는 적응 문제는 일종의 통과 의례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상징화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북한이탈여성은 구약 성서에 있는 하갈과 비유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은총이 내려져 있음을 분석하고 교회의 목회 상담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도 있다(구본경, 2021). 하지만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여성들은 하갈이라기보다 룻에 가깝다. 하갈이 광야에서 기진하여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난 것 같이 북한이탈여성들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았다. 룻이 이방인의 땅에서 생존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보살폈듯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개인들이라는 것이다. 룻이 다윗왕의 증조모가 되었듯이 북한이탈여성들의 후손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재들일 수 있다. 그렇다면 룻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그의 삶을 지원한 보아스는 누구인가? 보아스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고 본다. 생물학적 존재가 아닌 사회적 존재로서 보아스는 남한 기독교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울부짖는 고독한 영혼들 앞에 나타나시어 축복의 약속을 내려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남성이나 기득권 계층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들과 같은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여성들은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 복지와 지지의 대상이지만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개인들이며 이를 교회가 지지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교회 공동체의 관심이 필요하지만, 특히 북한이탈여성들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개인들을 도울 수 있는 전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복음은 이상이고 원리이지만, 선교는 현실이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깊고 그들을 좀 더 젠더 친화적 관점에서 돌볼 수 있는 여성 전담 선교사들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참여자들이 실천하고 있는 ‘평강공주 사역’에 대한 논의와 제언이다. 참여자들은 모두 중국에서의 혹독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에서 북한이탈여성들의 삶은 인신매매에 대한 유혹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김태현·노치영, 2003 ; 양민숙·이동훈, 2017).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에게는 중국에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는 기계 때로는 성적인 대상으로 전락하여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참여자들 역시 이런 경험을 했다. 그들이 실천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을 돕는 사역이다. 이러한 ‘평강공주 사역’은 중국 내 체류하는 북한이탈여성들에 대한 선교뿐만 아니라 이것이 발판이 되어 북한선교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의 교회는 북한선교뿐만 아니라 중국 내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보호와 그들의 영적 구원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김경진, 2015 ; 최병우, 2016). 매우 전향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교가 전문 선교인이나 목회자들에게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선교는 원주민에 의한 선교가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Seltz, 2016 ; 김성은, 2009). 문화적 저항이 적고 핵심적인 친숙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강공주 사역’과 같이 중국 내 선교를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들을 선교사로 양성하는 방안과 함께 평신도 선교사로 파견할 수 있는 교육과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독교 공동체에 소속되어 신앙의 힘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하고 성장에 이른 기독교 북한이탈여성들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하지만 많은 북한이탈여성들이 외상 경험을 겪었지만, 교회 밖에 존재하고 있다. 교회 밖에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독교 선교 차원에서 어떤 전략을 구성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5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일반화를 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동완 (2019). 국내 입국 북한이탈여성의 경계짓기: ‘직행’ 과 ‘중국행’ 사이 차이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2(1). 1-26.
- [Kang, D. W. (2019). Setting a boundary among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Difference between Going Straight to South Korea directly and Going to South Korea via China. *political information research*, 22(1). 1-26.]
- 강동완 (2017). 중국 현지 거주 북한이탈여성의 생활 실태 및 지원 방안. **북한학보**, 42(1). 155-197.
- [Kang, D. W. (2017). Actual Life of and Support Plans for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China. *North Korean Journal*, 42(1). 155-197.]
- 구본경 (2021). 북한 이탈 여성에 대한 여성주의 목회상당적 이해: 생존의 모티브 하갈을 중심으로. **목회와 상담**, 36(0). 39-91.
- [Gu, B. G. (2021). A Study on the Feminist Pastoral Counseling of a North Korean Woman Refugee : Focusing on the Survival Motif of Hagar.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36(0). 39-71.]
- 김경미 (2021).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후 성장 경험에 따른 행위자성의 재구성. **미래사회**, 12(6). 94~116.
- [Kim, K. M. (2021). Reconstruction of agency according to the experiences of post-traumatic growth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Journal of the Future of Society*, 12(6). 94-116.]
- 김경진 (2015). **동북아시아 난민 네트워크와 비국가 행위자의 역할 : 선교사와 탈북 브로커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Kim, K. J. (2015). *Northeast Asian Refugee Network and the Role of Non-State Actors: Focusing on Missionaries and North Korean Refugee Brokers*. Masters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Seoul, Korea.]
- 김경희 (2022). **청소년기에 경험한 아버지의 죽음이 성장과정과 성인기 삶에 미치는 영향 : - van-Manen의 체험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한림대학교.
- [Kim, K. H. (2022). *The Impact of Father's Death in Adolescence on Growing Process and Adult Life- Based on van-Manen's Method for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Doctoral Dissertation. Hallym University, Chuncheon, Korea.]
- 김광호 (2015). 불안증상을 가진 북한이탈여성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명상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75(0). 429-465.
- [Kim, K. H. (2015). Narrative Inquiry into the Experience of a North Korean Refugee Woman

- Suffering from Anxiety -Emphasis on Meditation Counseling Case-. *Hanguk Bulkyo Hak(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75(0). 332-338.]
- 김미자 (2010).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경험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7(1). 1-18.
- [Kim, M. J. (2010). A Study on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traumatic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7(1). 1-18.]
- 김상옥 (2020).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과 심리적안녕감의 관계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6(4). 201-218.
- [Kim, S. O. (2020). Mediating Effec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uma Exper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North Korean Defector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Vol.36 No.4: 201-218.]
- 김성은 (2009). 선교사 계일의 번역 문체에 관하여 -천로역정 번역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31. 199-227.
- [Kim, S. U. (2009). James S. Gale's Translation Style: Focusing on the Translation of The Pilgrim's Progress. *Korean Christianity and History*, 33. 199-227.]
- 김윤아·김미영 (2016).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5). 332-338.
- [Kim, Y. A. & Kim, M. Y. (2016). Factors Influencing Posttraumatic Growth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cademia and Technology*, 17(5). 332-338.]
- 김태현·노치영 (2003).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이야기 : 해석학적 현상학을 통한 중국생활체험 분석. **대한가정학회**, 41(8). 1-17.
- [Kim, T. H. & No, C. Y. (2003) Hermeneutical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the Lived Experiences in China.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1(8):1-17.]
- 김현아 (2016).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위기관리논집**, 12(1). 105-124.
- [Kim, H. A. (2016). Meta-analytic Review on the Mental Health among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Korean Crisis Management Journal*, 12(1). 105-124.]
- 김화순 (2017). 직행 탈북이주자의 노동이동과 탈북결정요인. **통일정책연구**, 26(1). 235-264.
- [Kim, W. S. (2017).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Escaping from North Korea and Labor Mobility of 'Jikhaeng' Migra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Unification Policy Studies*, 26(1). 235-264.]
- 김현경 (2011). 탄력성(resilience) 관점에서 조명한 북한이탈여성의 생애 연구: 북한과 중국에서의 생활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4(2). 7-36.

- [Kim, H. G. (2011). Lived Experience of Resilience for North Korean Refugee Woman Who Has Lived in North Korea and China. *Gender and Culture*, 4(2). 7-36.]
- 김효규 (2013).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회복과정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Kim, H. K. (2013). *A Study on the Trauma Recovery Process among the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Doctoral Dissertation. Backseok University, Cheonan, Korea.]
- 박병애 (2020). **탈북민 목회자의 생애사 분석을 통한 복음 수용성 연구-mandelbaum 분석방법론 적용**-.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Park, B. A. (2020). *A Study on Receptivity of North Korean Defected Pastors. -an application of mandelbaum life history analysis*.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 박영호·김수암·이금순·홍우택 (2010).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 [Park, Y. H., Kim, S. A., Lee, K. S. & Hong, U. T. (2010). *North Korean Human Rights White Paper*.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엄태완 (2015). 북한이탈여성 이동(移動)의 재해석 : 노마드(nomad)로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성연구**, 88(1). 7-42.
- [Eom, T. W. (2015). Reinterpretation of the Migration of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 What is the Meaning as a Nomad?. *Korean Women Development Institute*, 88(1). 7-42.]
- 연성진 (2018). **북한이탈주민 탈북과정에서의 인신매매범죄 피해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8-AB-04.
- [Yeon, S. J. (2018). *An Exploratory Study of North Korean Defector's Human Trafficking Victimization en route to South Korea*. Korea Criminal Policy Research Institute.]
- 이명순·박경 (2011). 북한이탈여성의 외상경험과 우울: 낙관성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 239-239.
- [Lee, M. S. & Park, K. (2011). Traumatic Experience and Depression in Women Fugitives of North Korea: Moderating Effect of Optimism and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y. *A collection of materials from the conference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 239-239.]
- 이명신 (2020). **북한이탈여성의 한국 정착 만족도 고찰: Creswell의 혼합연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Lee, M. S. (2020).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Resettlement in South Korea Among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Using Creswell's Mixed Methods Research*.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 이민영·김현경 (2007). 새터민 여성의 이주로 인한 상실의 극복 체험: 남한 남성과 결혼한 여성을 중심

- 으로. **사회복지연구**, 35(0). 525-554.
- [Lee, M. Y. & Kim, H. K. (2007). Lived Experience of Overcoming Migratory Loss Among North Korean Refugee Women who Got Married to South Korean Ma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 35(0). 525-554.]
- 이상희·임수아·허진무 (202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여성 노인의 합창단 활동과 회복 탄력성 및 성공적 노화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체육학회지**, 60(4). 273-286.
- [Lee, S. H., IM, S. A. & Heo, J. M. (2021). Choral Singing, Resilience and Successful Aging among North Korean Older Female Defectors with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60(4). 273-286.]
- 이순선 (2018).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외상후성장, 신체통찰력, 대상관계가 상담자의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에니어그램연구**, 15(2). 95-112.
- [Lee, s. s. (2018). The Effects of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Post Traumatic Growth(PTG), Body Insight Scale(BIS), and Object Relations on Counselor's Expertise. *Journal of Enneagram Studies*, 15(2). 95-112.]
- 이순형·최연실·진미정 (2015). **북한이탈주민의 종교경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Lee, S. H., Choi, Y. S. & Jin, M. J. (2015). *Religious experiences of North Korean refugee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and Culture Center.]
- 정경임·전혜성 (2020). 외상경험이 있는 중년기 성인의 지각된 배우자지지, 외상후성장, 회복탄력성,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가족과 가족 치료**, 28(4). 427-450.
- [Jung, K. I. & Jeon, H. S. (2020).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Spouse Support, Post Traumatic Growth, Resilience and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in Middle-Aged Adults with Trauma Experiences. *Family and Family Therapy*, 28(4). 427-450.]
- 정상원·김영천. (2014). 질적 연구에서의 현상학적 글쓰기의 전략과 방법의 탐구. **교육문화연구**, 20(3), 5-42.
- [Jung, S. W. & Kim, Y. C. (2014). General Thesis : Exploration of Strategies and Methods of Phenomenological Writing in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0(3), 5-42.
- 최병우 (2016). 탈북 도우미의 소설화 양상과 그 의미. **현대소설연구**. 63. 327-355.
- [Choi, B. U. (2016). Aspects of the Novelization of North Korean Refugee Helper and Their Meaning. *Contemporary Fiction Research*, 63. 327-355.]
- 통일부 (2022). **북한이탈주민 통계**. 서울: 통일부.
- MINISTRY OF UNIFICATION(2022). *North Korean defectors statistics*. Seoul: MINISTRY OF

UNIFICATION.

- Chung, R. C. Y. & Bemak, F. (2002). Revisiting the California Southeast Asian mental health needs assessment date: An examination of refugee ethnic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0, 111-119.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Walk Free Foundation (2017). *Global Estimates of Modern Slavery*. Geneva, Switzerland: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Shay, J. (2014). Moral Injury. *Psychoanalytic Psychology*, 31(2), 182-191.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Miles, M. B., Huberman, A. M. & Saldaña, J. (2018). *Qualitative data analysis: A methods source-book*. Sage publications.
- Muico, N. K. (2005). *An Absence of Choice: The Sexual Exploitation of North Korean Women in China*. London: Anti-Slavery International.
- Padgett, D. K. (2016).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36). Sage publications.
- Potocky-Tripodi, M. (2002). *Best Practices for Social Work with Refugees and Immigrants*. Columbia: Columbia University Press.
- Seltz, G. P. (2016). *Confessing the "Real Present Jesus: The Power to Overcome Cultural Barriers with the Good News of the Gospel"*. Lutheran Mission Matters.
- Strauss, A. & Cobin, J. (2015).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4th). London: Sage.
- Van Manen, M. (2016).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Walnut Creek, CA: Left Coast Press.

기독교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질적 연구: 밴 매넨(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방법

A Qualitative Study on the Post-Traumatic Growth of Christian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 Van Manen's Hermeneutic Phenomenology Study Method

박병애 (숭실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 북한이탈여성들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자는 밴매넨(Van Manen)이 제시한 해석학적 현상학연구로 접근했다.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외상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에서 회복과 성장에 대한 분석을 했다. 연구에는 5명의 북한이탈여성들이 참여했다. 자료는 일대일 심층 면담을 수행하여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142개의 의미가 도출되었고, 이를 45개의 주제로 구성했으며, 이렇게 드러난 주제를 14개의 본질적 주제로 결집했다. 14개의 본질적 주제를 신체성, 시간성, 관계성, 공간성으로 재배열했다. 신체성은 '살아서 체험한 지옥', '성 노예로 전락', '모성의 박탈'로 나타났다. 시간성은 '세상 믿음의 붕괴',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의 전회', '새로운 생명', '하늘 가는 길에 동행', '하나님 사랑의 전파'로 나타났다. 관계성은 '삶의 기반 박탈', '시선의 폭력에 노출', '하나님 형상의 회복'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간성은 '중국이라는 감옥', '가나안의 꿈과 현실', '로템나무 아래서의 쉼'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교회 공동체 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회복시스템 구축, 젠더 친화적인 여성전담 사역자 양성, 그리고 중국 선교에 있어서 북한이탈여성들의 주체화에 대한 제언을 했다.

주제어: 기독교 북한이탈여성, 외상 후 성장, 탈북 트라우마,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평강공주 사역